

第8章 政 治

第1節 政治寫眞



〈사진 8-1〉

좌익진영 “민선” 결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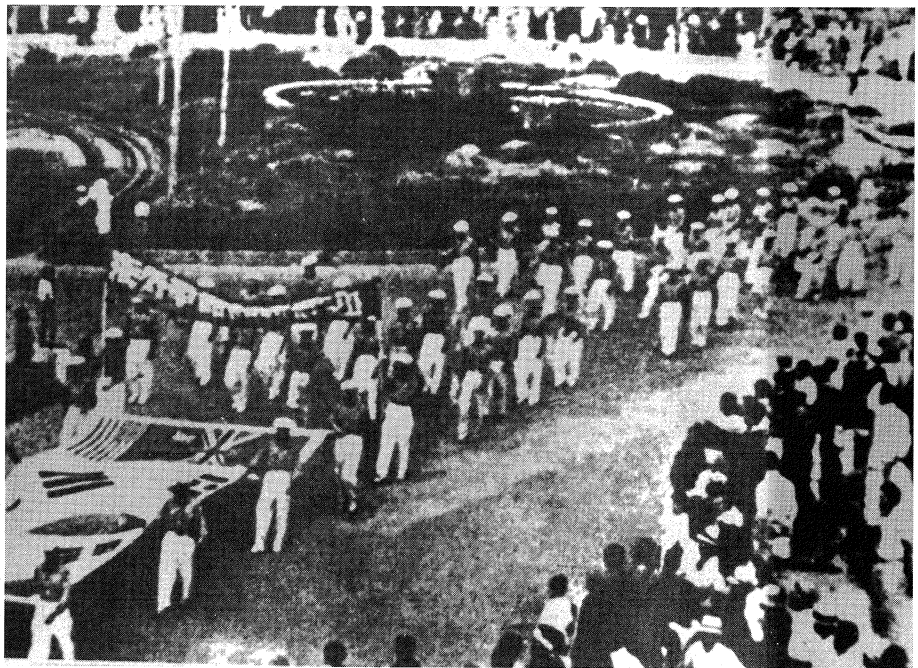
〈사진 8-2〉

소련군 평양진주



〈사진 8-3〉

북진주 소련군



〈사진 8-4〉

임정요인 환국



〈사진 9-5〉

북행 김구



〈사진 9-6〉

제주폭동 가담 주민 연행



〈사진 9-7〉

북 정권 수립



〈사진 9-8〉

미군 철수



〈사진 9-9〉

5·10총선(입후보자 벽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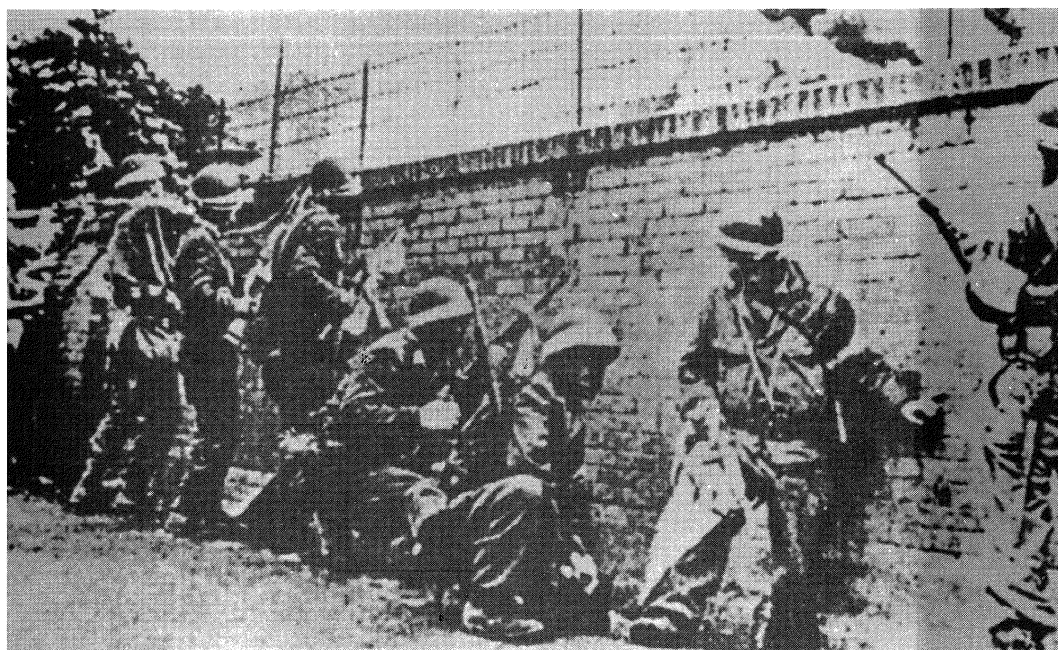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0〉

5·10총선(투표소)



〈사진 9-11〉

반민족행위처벌 재판정에선 최남선



〈사진 9-12〉

여·순 진압국군



〈사진 9-13〉

여·순 희생 군경 가족



1950년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
애치슨은 미국의 방위선이
「필리핀—류큐제도—일본—알류산
열도—알래스카」라고 규정했다.
그는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을
제외시킴으로써 훗날 6·25를 발발
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.

〈사진 9-14〉

서울시내에서
시가행진을
벌이고 있는
북한군의 모습



〈사진 9-15〉

1950년 6월 28일 서울시내에 진입한 북한군의 T-34형 탱크



〈사진 9-16〉 국군에게 사로잡힌 입산 공비들의 초췌한 모습. (1951년 2월 전북 순창)



남로당 프락치로 밝혀져
공판장에 나온
김약수 (국회부의장)

〈사진 9-17〉



〈사진 9-18〉

4사 5입 개헌(좌 이철승, 우 최순주)



〈사진 9-19〉

발체개헌안 거수 표결



휴전협상이 시작된 직후인 1951년 11월 26일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 휴전선을 지도에 그려놓고 서명하는 유엔군 연락장교 제임스 C 메레이 대령(왼쪽)과 공산군 연락장교 장춘산 대령(판문점에서 있었던 이 서명식에 한국군은 휴전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참석하지 않았다. 정식 휴전협정은 이로부터 1년 8개월 후에 조인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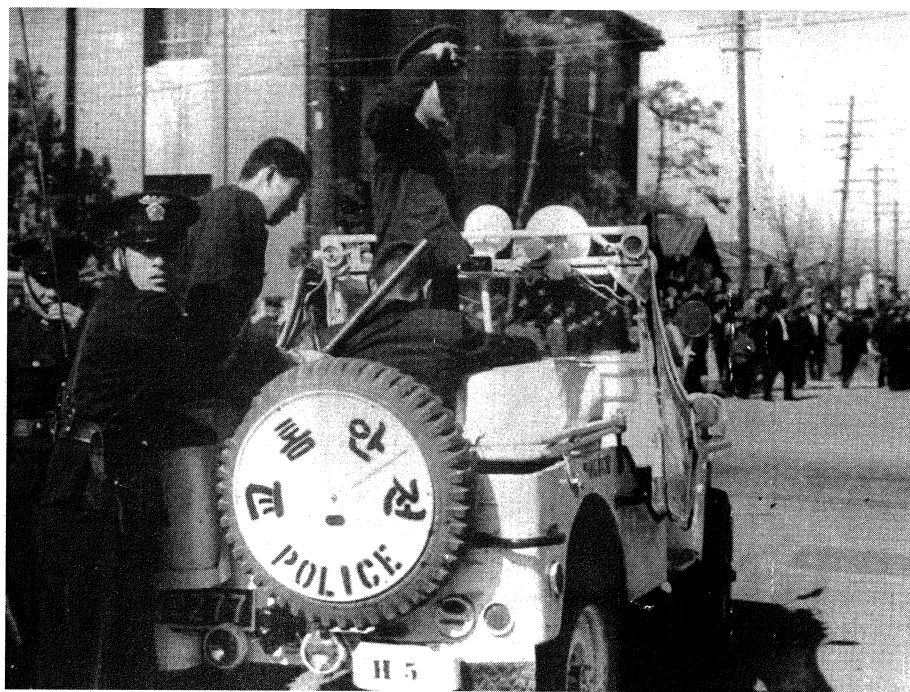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20〉



〈사진 9-21〉 사형이 선고된 김윤근 사령관 등 국민방위군사건 책임자들이 총살형에 처해지고 있는 장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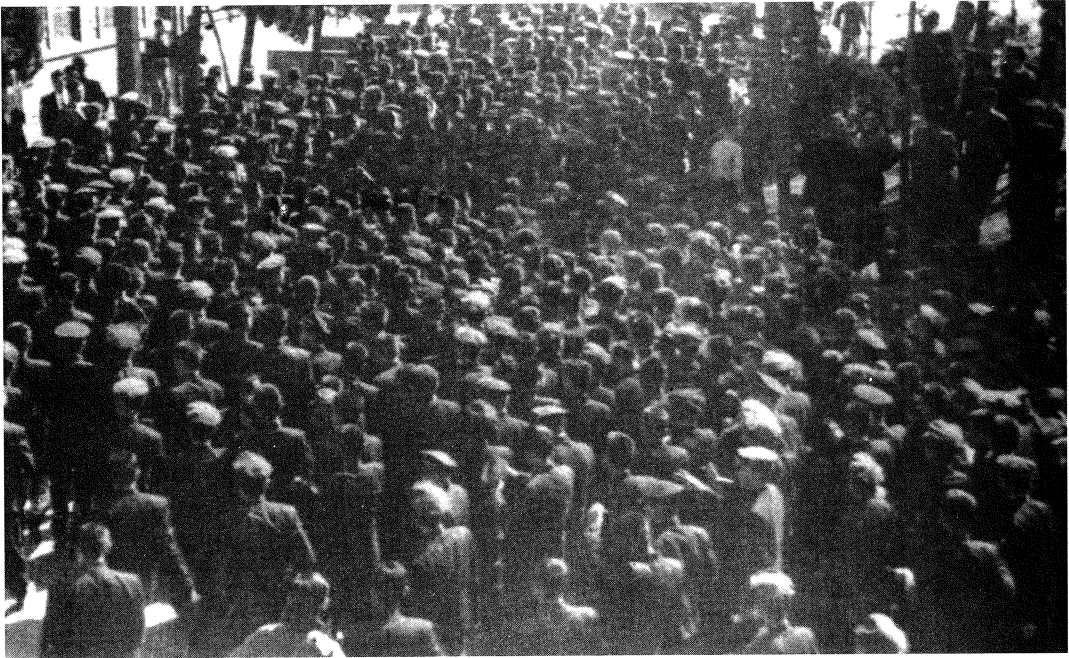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22〉 재판정에 나선 조봉암(한복 입은 이).
「이승만의 장기 집권은 용인할지언정 죽산(竹山)을 지원할 수 없다」는
냉전적 사고방식속에서 죽산 제거의 역사적 음모는 가능했다.



〈사진 9-23〉

2·28 학생의거



〈사진 9-24〉

2·28 학생의거



〈사진 9-25〉

2·28 학생의거



〈사진 9-26〉

경찰에 강제
연행되는 경북고 데모 학생



〈사진 9-27〉

제 3대 정·부통령 선거 유세



〈사진 9-28〉 김주열군 시체(물에 뜬 모습)



〈사진 9-29〉 김주열군 시체(배에 인양하는 광경)



〈사진 9-30〉

3·15부정선거 마산 데모



세종로에서
데모 학생들에게
발포하는 경찰
('60. 4. 19 하오 5시)→

4·19 고대생 데모 ↓



〈사진 9-31〉



〈사진 9-32〉 1960년 4월 20일 오전 대구대학생 약 5백명은 등교와 동시에 데모를 모의하고 비탈진 동대학 광장에 모여 선언문을 낭독하고 구호를 외치며 오전 10시가 되자 일제히 정문을 나와 남부관통도로상으로 쏟아져 나왔다.



〈사진 9-33〉

4·19 대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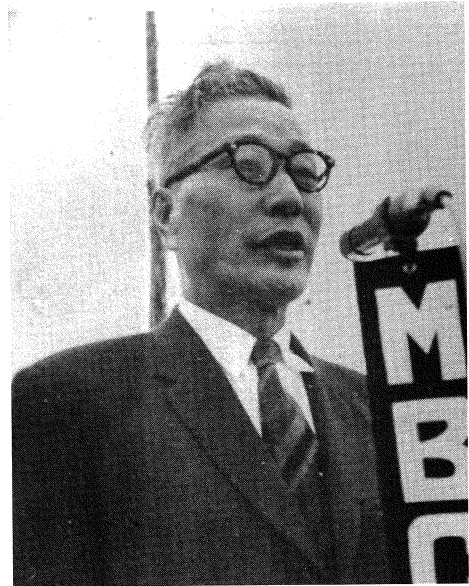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34〉 하와이 망명차 1960년 5월 29일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승만 박사를 허정과도정부 수반 겸 외무장관(뒷모습)이 영접하고 있다.



대통령 하야소식에
기뻐하는 군중
('60. 6. 15)

〈사진 9-35〉



〈사진 9-36〉 허정 권한대행 기자회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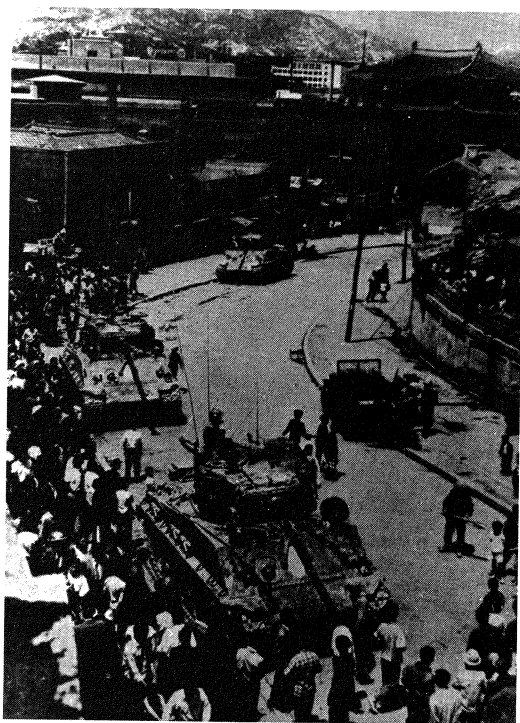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37〉

신헌법 성립에 시민들 환호('60. 6. 15)



〈사진 9-38〉 1960년 4·19직후 실시한 거창
양민학살사건 진상 조사 때 발굴한 유골들



〈사진 9-39〉 1961년 5월 16일
새벽 군사정변이 일어났다.
서울시내에 진주한 군사정변군 전차대의 모습



〈사진 9-40〉

5·16 정변



〈사진 9-41〉

군정연장 반대 시위(63년)



〈사진 9-42〉 제 3공 헌법 공포



〈사진 9-43〉 5대 대선(현수막)



〈사진 9-44〉

5대 대선(벽보)



〈사진 9-45〉

5대 대선(백보)



〈사진 9-46〉 1962년 10월 10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
오히라 일본 외상과 만나 한일 회담타결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.



〈사진 9-47〉

5·16 병영화 한 고려대



〈사진 9-48〉

64년 고려대 앞 군인들을 태운 군용차 행렬



〈사진 9-49〉

64년 서울거리



〈사진 9-50〉

한·일회담 반대시위 고려대생들

박대통령은 6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학생들은 모두 연행했다.
군사 쿠데타에 대한 반감과 대일 저자세 외교에 대해 학생들은 거세게 저항했다.



〈사진 9-51〉

64년 서울대 정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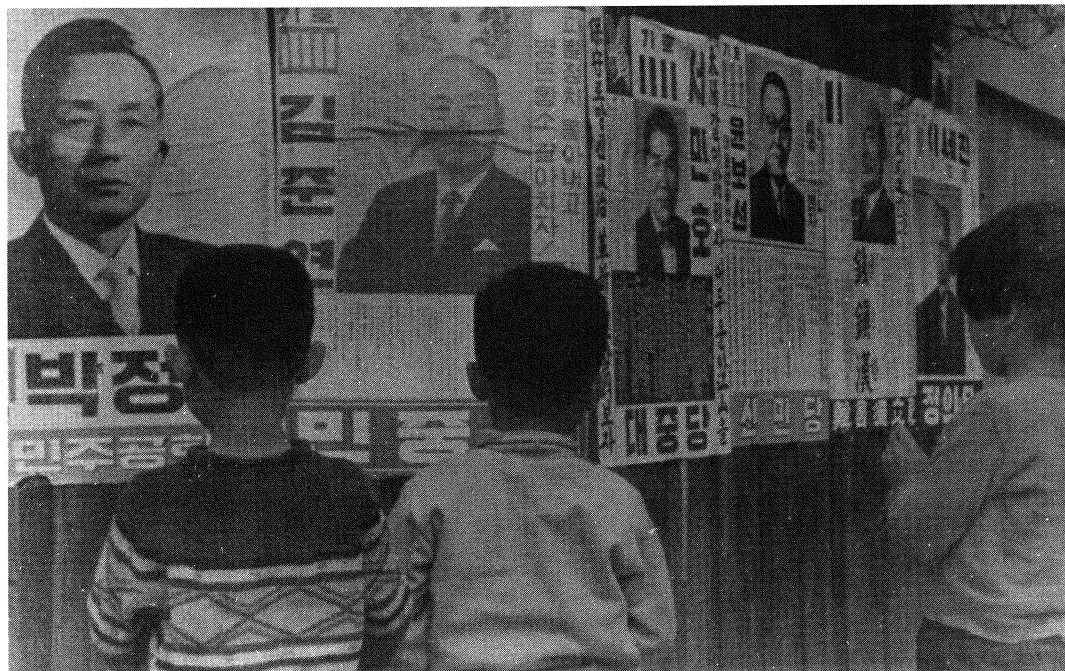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52〉

한일협정 조인 후 6개월 뒤인 1965년 12월 18일
박정희 대통령이 한일조약 비준서에 서명했다. 이동원 외무부장관,
김동조 한일회담 수석대표, 정일권 국무총리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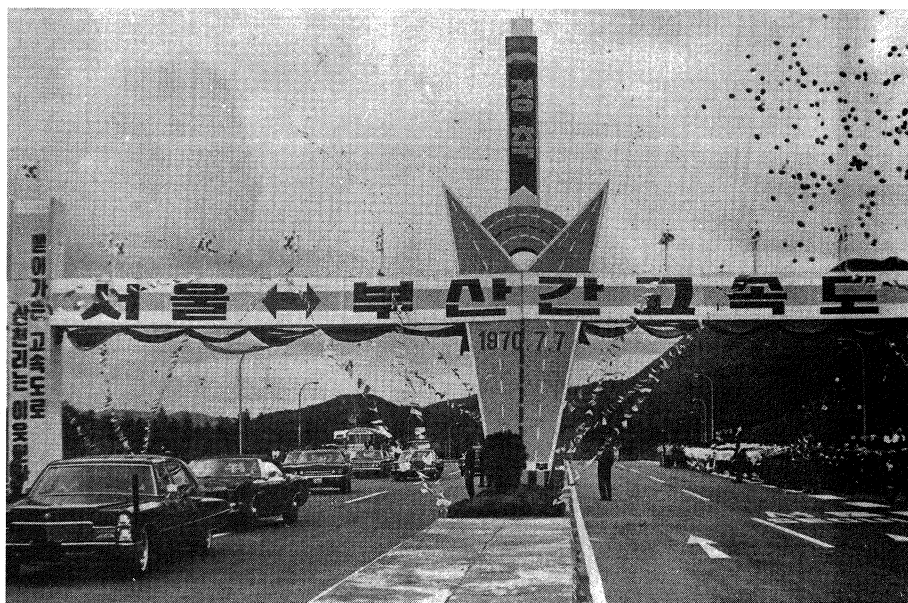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53〉 민중·신한 통합선언대회 “신민당”창당 직전에 거행된
“민중”, “신한”통합 선언대회 광경



〈사진 9-54〉

6대 대선(벽보)



〈사진 9-55〉

경부고속도로 개통(1970. 7. 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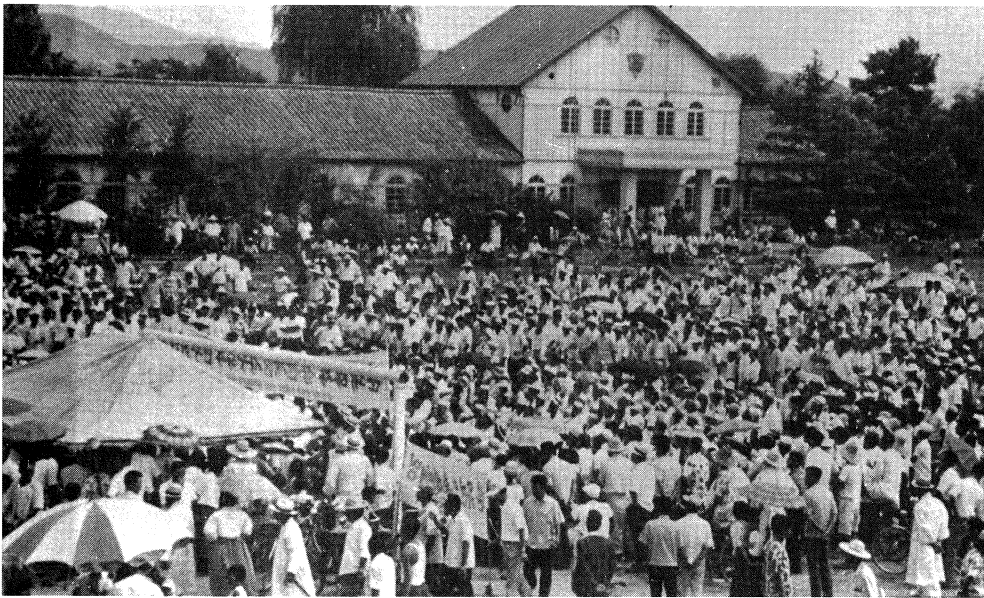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56〉

3선 개헌 반대(국회)



〈사진 9-57〉

3선 개헌 지지하는 정일권(69년 효창구장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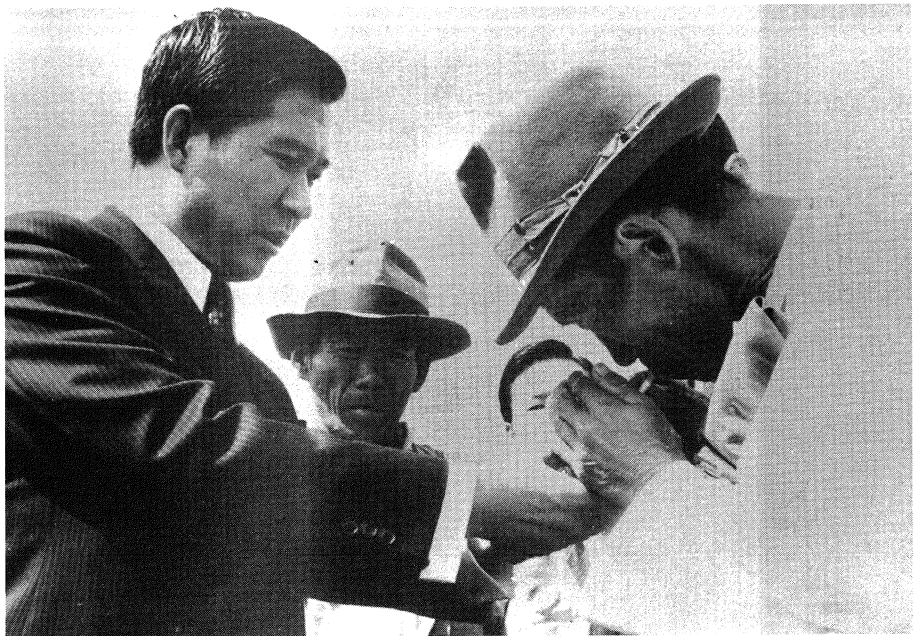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58〉

3선 개헌 반대 경주강연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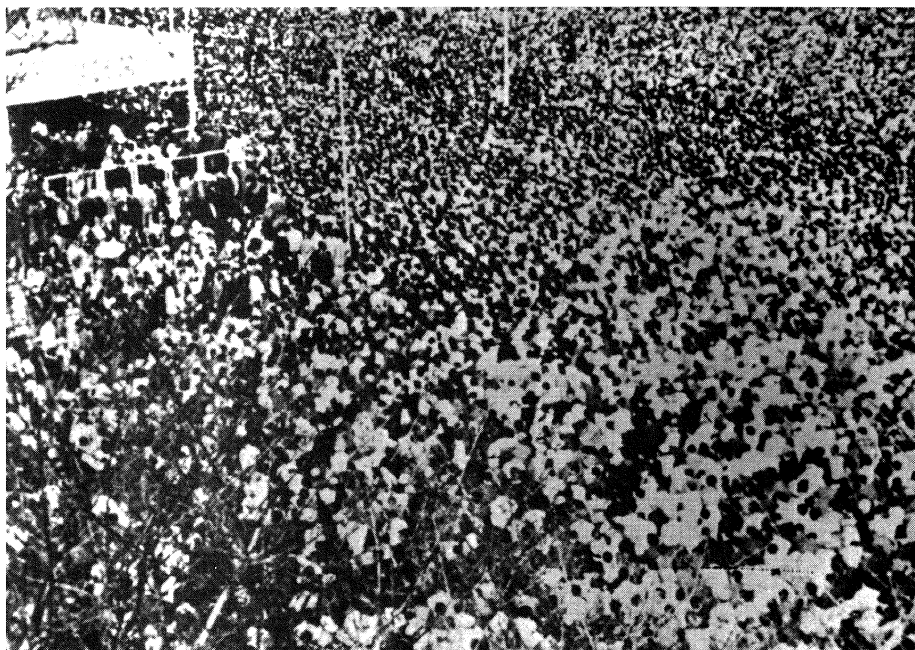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59〉

신민당 대통령 후보에 김대중 당선(1970. 9. 29)



〈사진 9-60〉

7대 대선 김대중 유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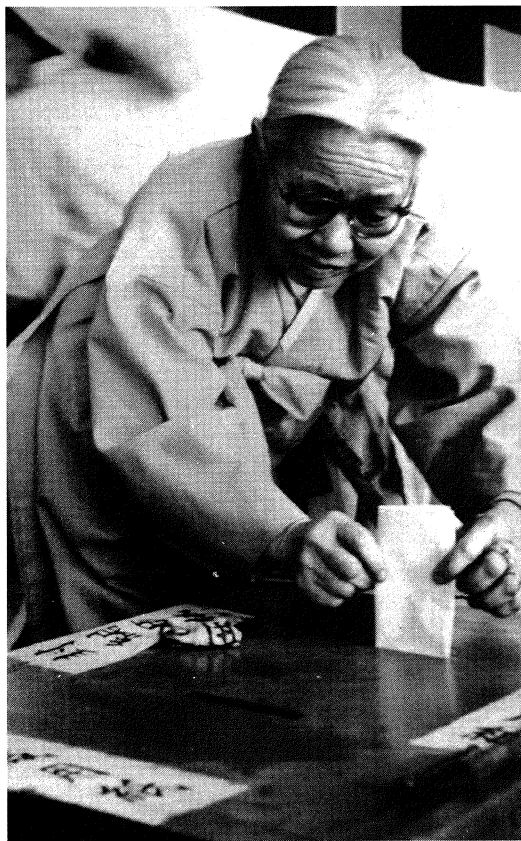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61〉

7대 대통령 선거 유세(서울 장충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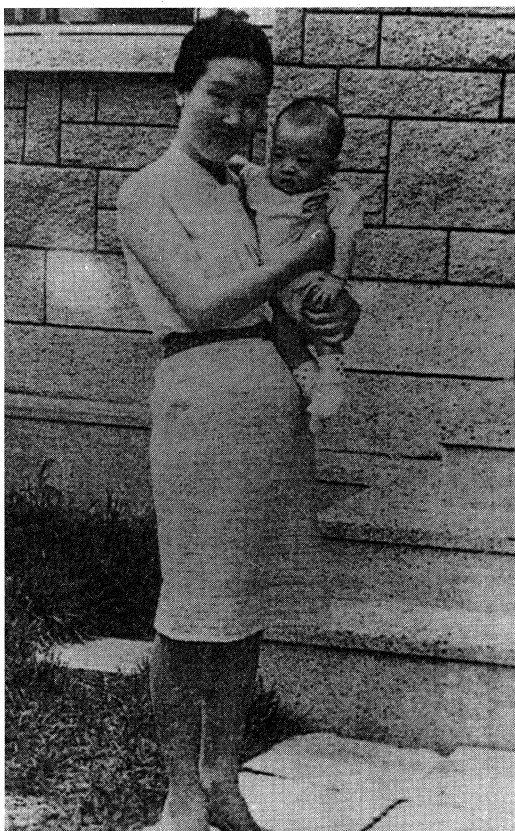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62〉

7대 대선 유세



〈사진 9-63〉 7대 대통령 선거(투표소)



〈사진 9-64〉 정 인 숙



〈사진 9-65〉 위장간첩 이수근



〈사진 9-66〉 무장간첩 31명중
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.
나머지 30명은 모두 사살됐다.



〈사진 9-67〉

대구 중구 개표소



〈사진 9-68〉

조국평화통일원칙 등 7개항의 "남북공동성명"
서울·평양 동시발표(71. 7. 4)



〈사진 9-69〉 제9대 대통령을 선출한 통일주체국민회의 제1차 회의 전경



〈사진 9-70〉 1973년 8월 8일 동경에서 납치된 지 5일 만인 8월 13일 서울 동교동 자택에 나타난 김대중씨가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, 귀환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.



〈사진 9-71〉 8·15기념식장 대통령 저격상황(육영수 여사 저격당해 쓰러짐)



〈사진 9-72〉 김수학 경북지사 국민투표 모습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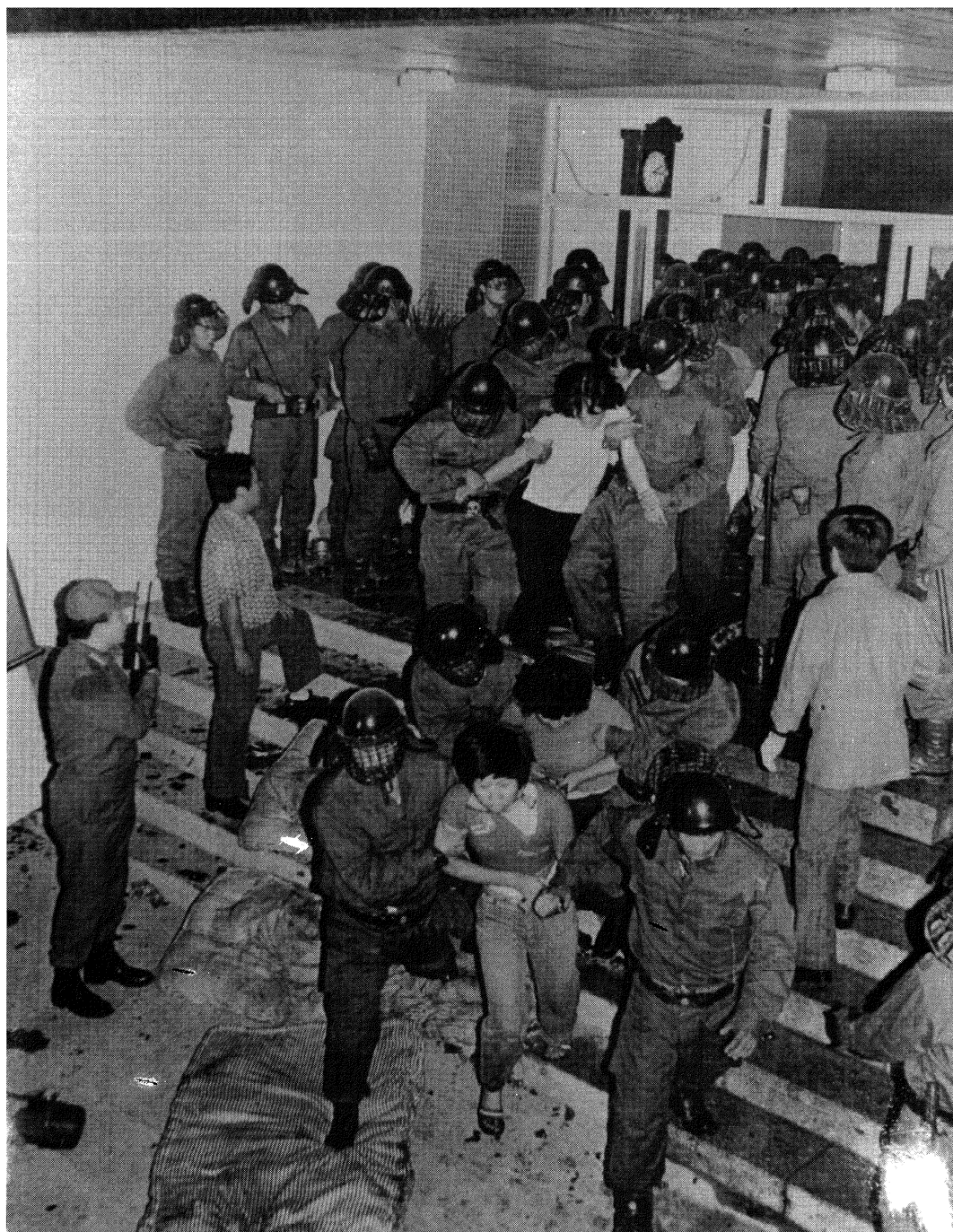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73〉

8대 총선(의성 우시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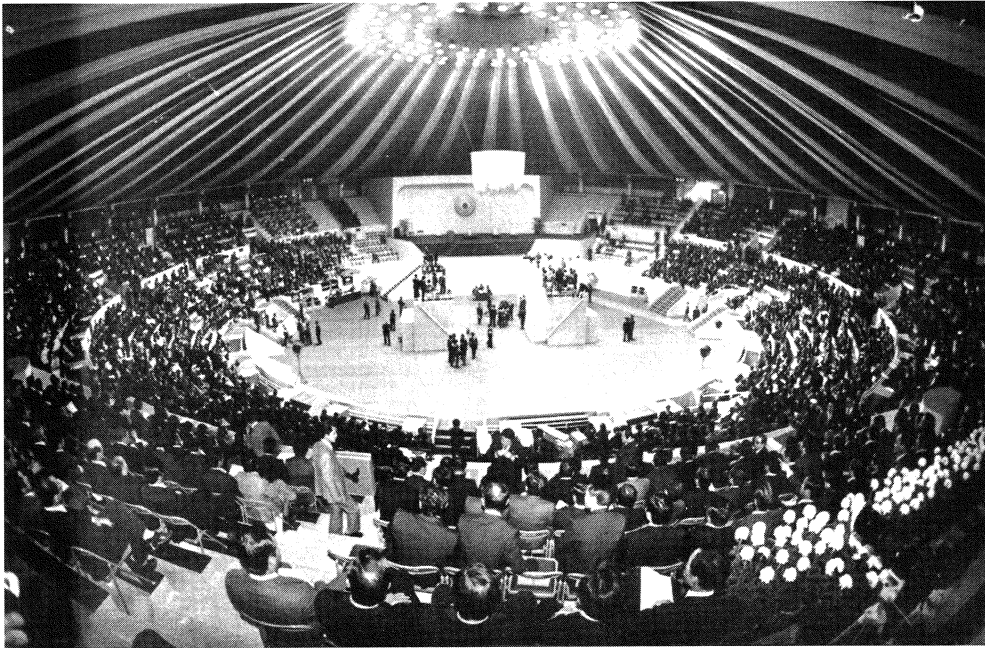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74〉

10대 총선 개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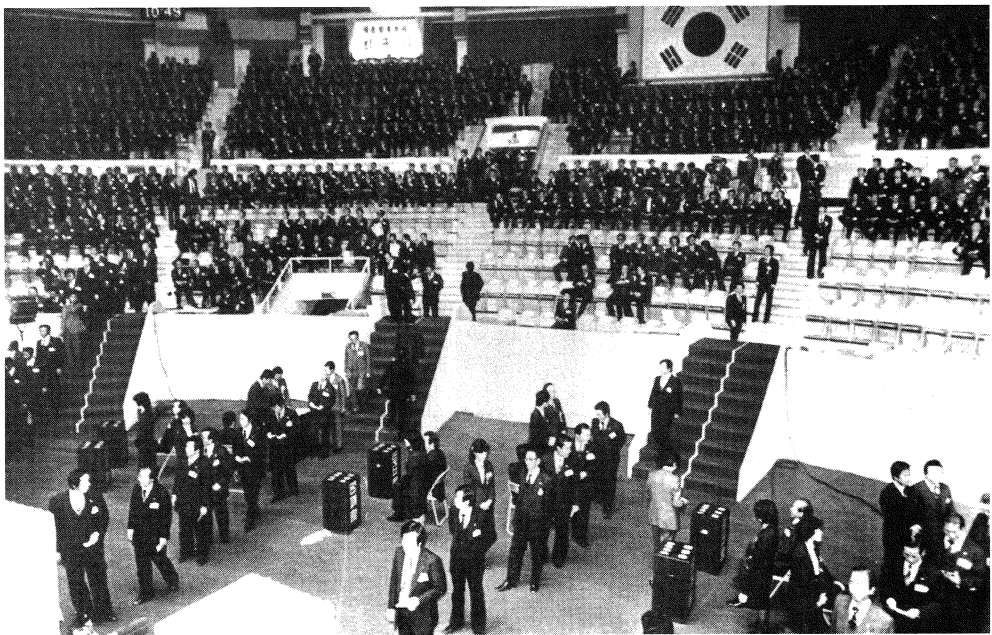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75〉 마포 신민당사에서 농성중인 YH무역여공들을 무장경찰들이 강제 해산하고 있다.
여공들은 힘에 부쳐 저항하지 못하고 대부분 들러 나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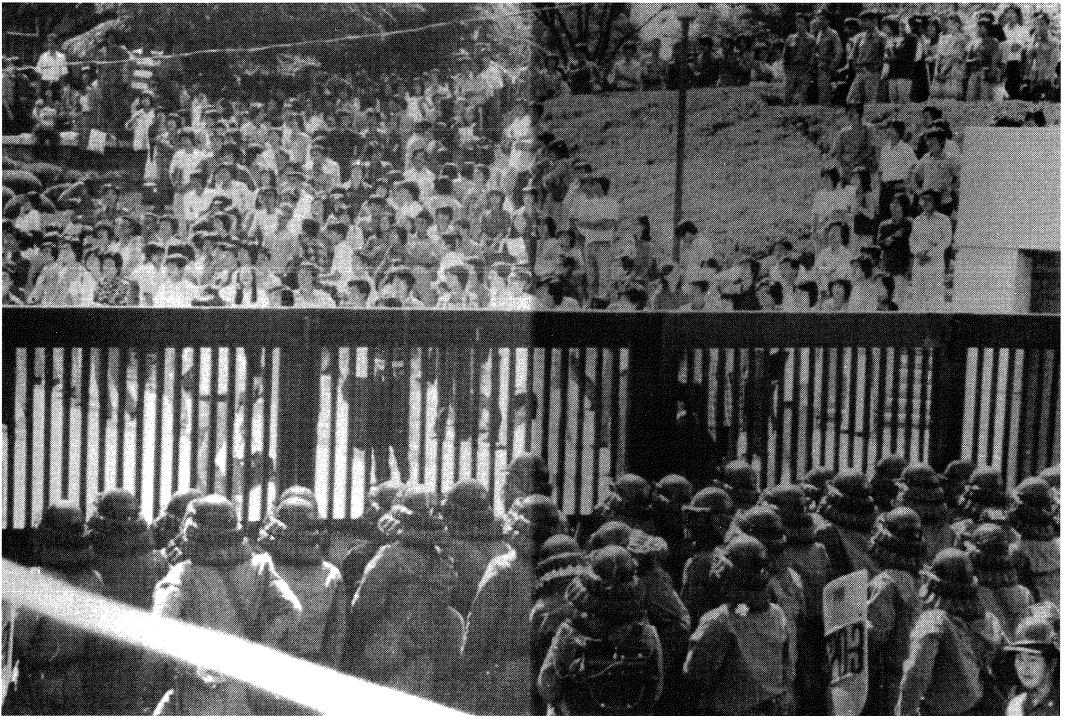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76〉

통일주체국민회의(79년 12. 6 장충체육관)



〈사진 9-77〉 통일주체국민회의 (79년 12월 6일, 장충체육관 통일주체 국민회의 제3차 회의)



〈사진 9-78〉

계대 데모(80. 5)



〈사진 9-79〉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취임



〈사진 9-80〉

80. 5 국보위 발족



〈사진 9-81〉

광 주 항 쟁



〈사진 9-82〉

11대 대선



〈사진 9-83〉

최규하 대통령 하야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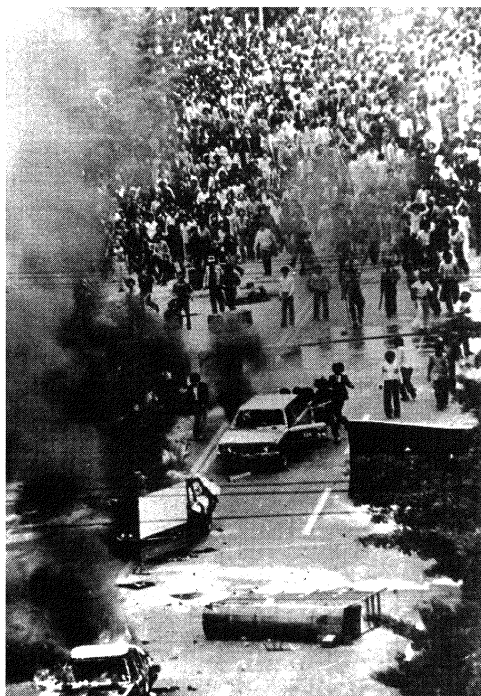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84〉

군인들의 발포소식이 온 도시에 퍼진 뒤,
5월 20일 택시운전수들은 자신의 택시를 몰
고 시위에 가담, 1백여대가 불을 켜 채 도청
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.



〈사진 9-85〉

광 주 항 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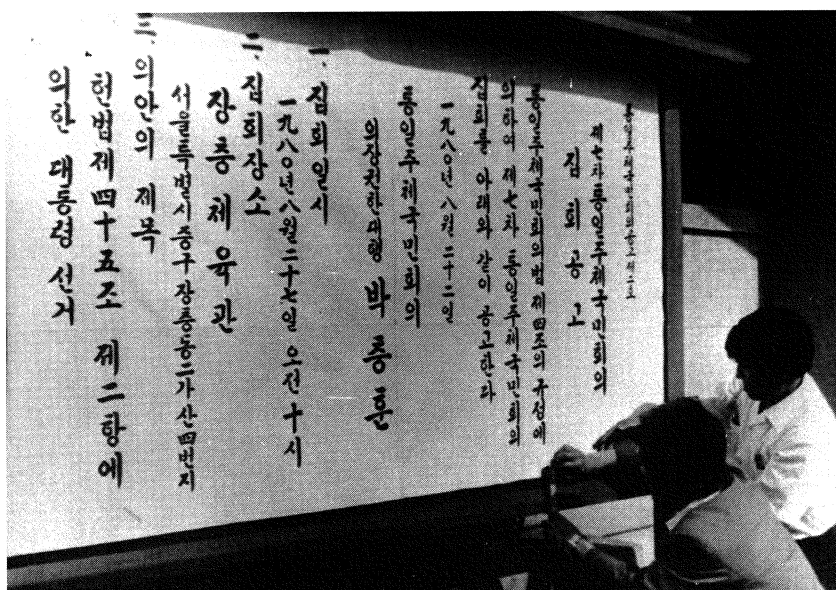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86〉 광주민주화운동



〈사진 9-87〉

광주민주화운동



〈사진 9-88〉

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집회공고



〈사진 9-89〉

11대 대선



〈사진 9-90〉

11대 대선



〈사진 9-91〉

제11대 대통령 취임



〈사진 9-92〉

5공 헌법 국민투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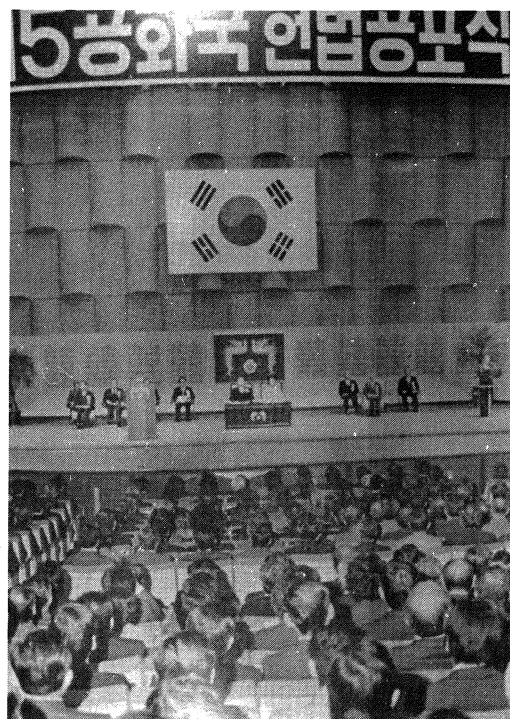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93〉

5공 헌법 국민투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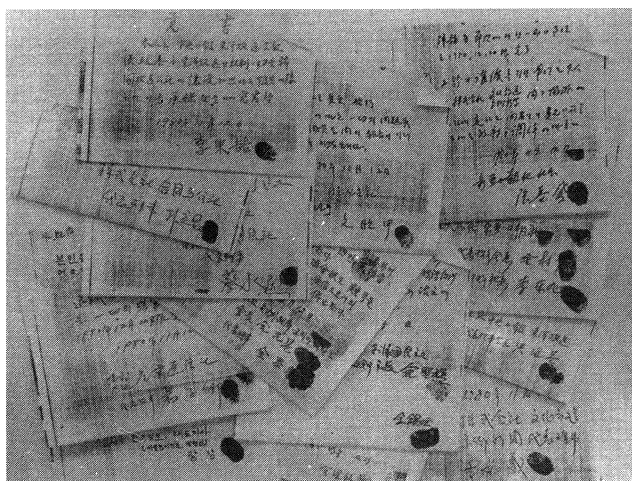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94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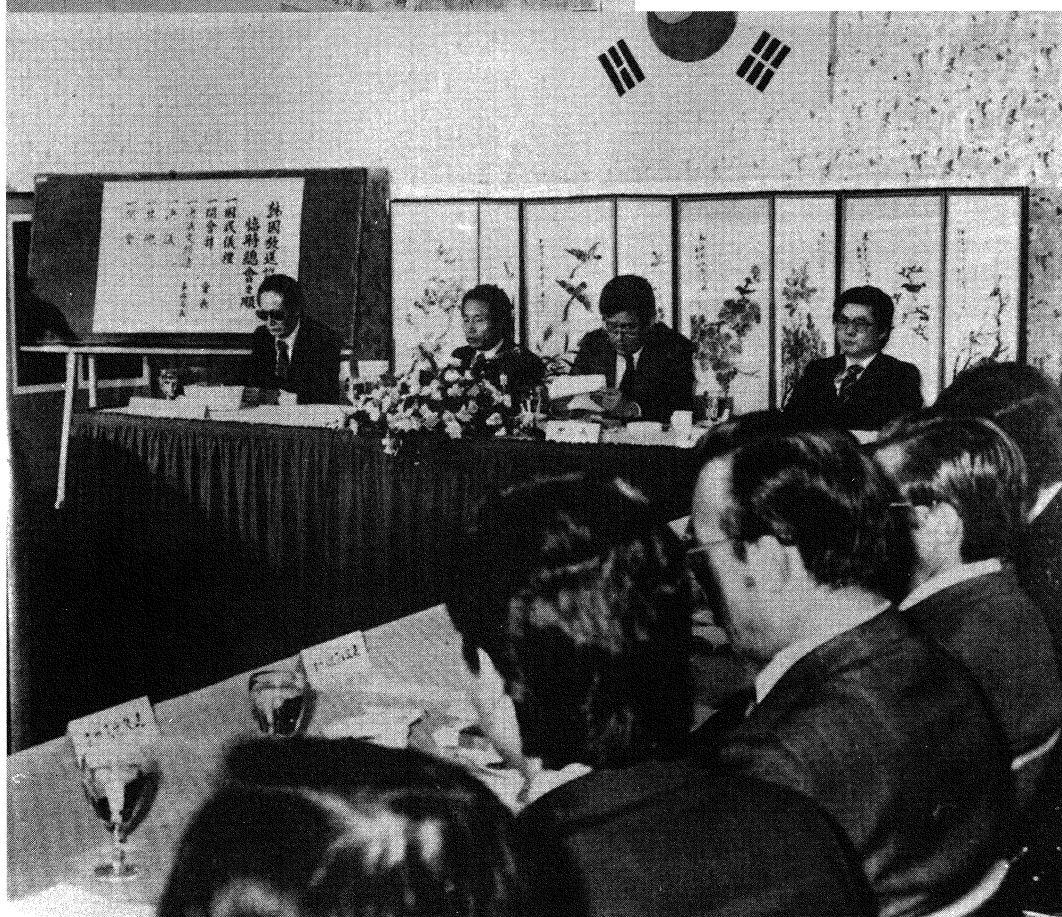
5공 헌법 국민투표 개표소



〈사진 9-95〉 제5공화국 헌법공포



↖ 1980년 11월 12일 언론사 대표들이
자필로 쓴 언론 통폐합 각서



〈사진 9-96〉

언론통폐합을 결의한 방송협회 회의.



〈사진 9-97〉

12대 대선 선거인단 선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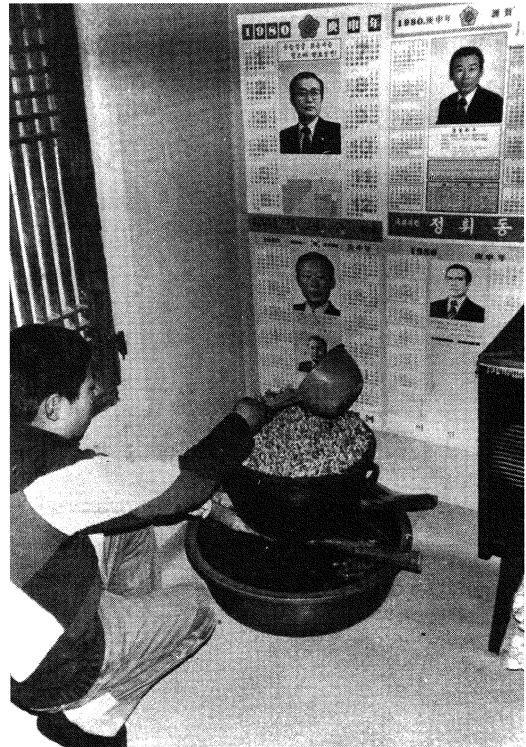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98〉

12대 대선 투표



〈사진 9-99〉 12대 대선 투표('81. 2. 25)



〈사진 9-100〉 11대 총선 (홍보 벽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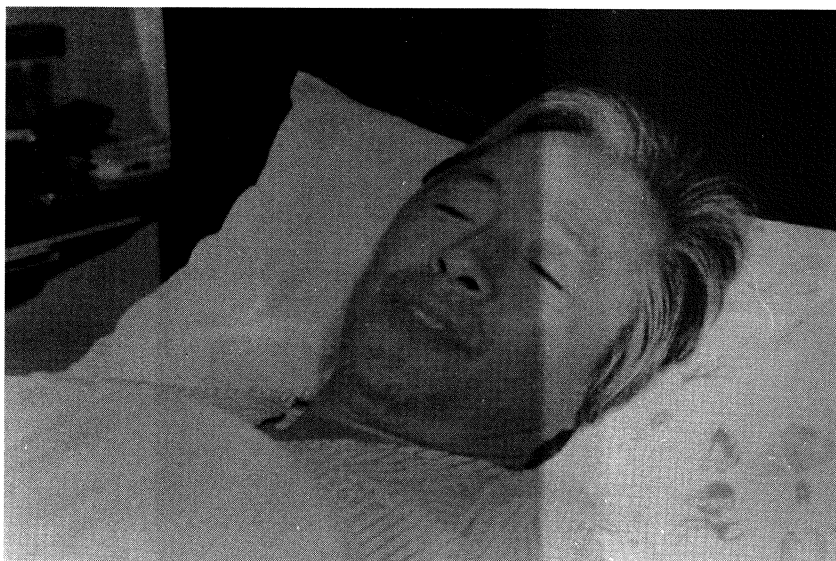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01〉

아웅산 폭발사고(사고 직전 도열한 수행원들의 모습)



〈사진 9-102〉

6·3 인천사태



〈사진 9-103〉 1983년 5월 18일부터 23일간의 단식 투쟁을 벌인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서울대 병원에 강제 입원된 후에도 10일 넘게 단식을 계속했다.



〈사진 9-104〉 12대 총선(임후보자 포스터)



〈사진 9-105〉

6월 항쟁 연좌농성중인 수만의 시위대(서울 종로 5가)



〈사진 9-106〉

6월 항쟁 최루탄에 쫓기는 「대행진」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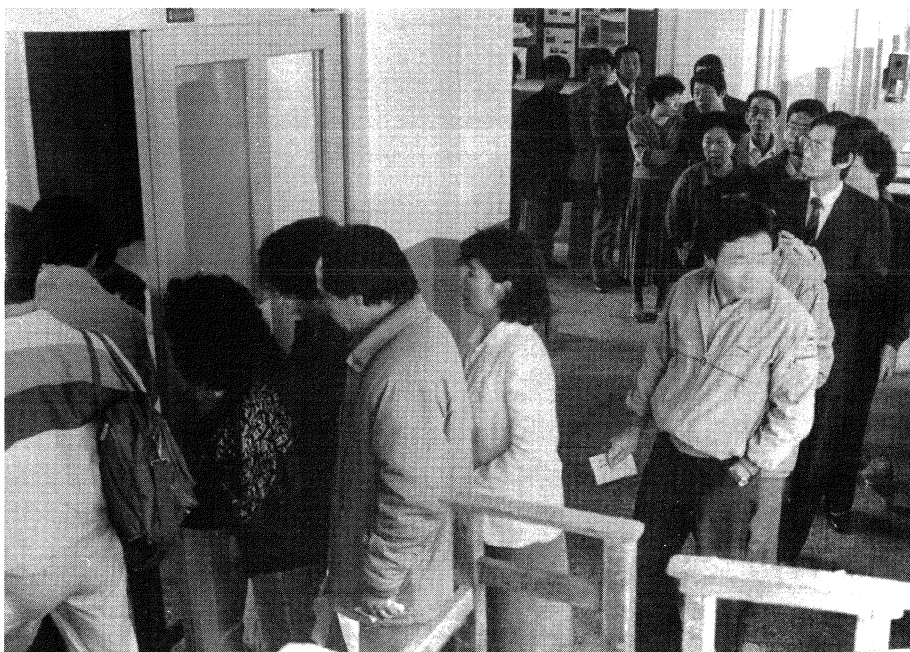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07〉

6·29 선언 (시민의 모습 ①)



〈사진 9-108〉

6·29 선언 (시민의 모습 ②)



〈사진 9-109〉

6공 헌법 국민투표 투표행렬(87년)



〈사진 9-110〉

6공 헌법 국민투표 투표소(87년)



〈사진 9-111〉

6공 헌법 국민투표 투표소(87년)



〈사진 9-112〉 바레인에서 붙잡힌 김현희가 서울로 압송돼 김포공항에 도착할 때의 모습. (자살 방지를 위해 입에 자갈을 물렸다.)



〈사진 9-113〉 바다밑에 가라앉아 있는 KAL 007의 잔해.
잔해들은 모두 크기가 2×2m 이내의 크기로 조각나 있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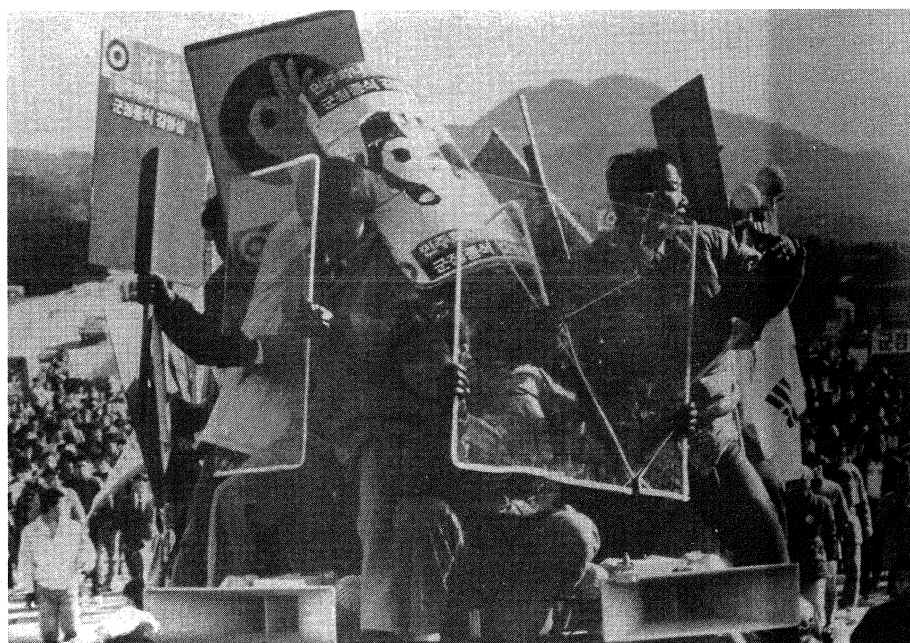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14〉

13대 대선 유세(노태우 임후보자)



〈사진 9-115〉

13대 대선 유세(김영삼 임후보자)



〈사진 9-116〉

13대 대선 여수 유세



〈사진 9-117〉

13대 대선 임후보자 벽보



〈사진 9-118〉

13대 대선 유세(노태우 임후보자)



〈사진 9-119〉

13대 대선 개표소



〈사진 9-120〉

13대 대선 투표소



〈사진 9-121〉

노태우, 13대 대선 당선



〈사진 9-122〉

노태우, 13대 대선 당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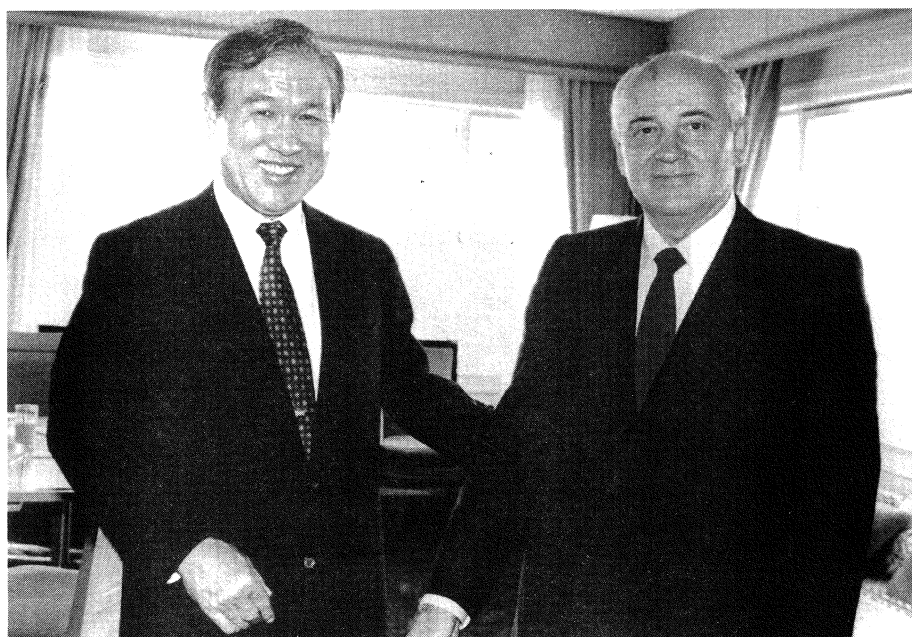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23〉

전두환 대통령은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불에 꼭 참석하여 사찰에서의 법도를 충실히 따랐다. 사진은 백담사 은둔 1주년을 맞아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봉헌법회에서 불경을 외우고 있는 모습이다.



〈사진 9-124〉

13대 총선 (합동유세장, 달성군)



〈사진 9-125〉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의 역사적 만남.
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북한을 의식해 사진 찍는 것을 몇번 망설이다
노대통령의 권유에 응했다.



〈사진 9-126〉 외국어대학생들의 정총리 폭행사건은 한 달 이상 계속된
재야운동권의 노태우 정권 타도 투쟁에 종지부를 찍었다.
계란과 밀가루로 범벅이 된 정총리가 대학원 학생들의 종강선물을
원손에 든채 일그러진 표정으로 시위학생들을 헤쳐나가고 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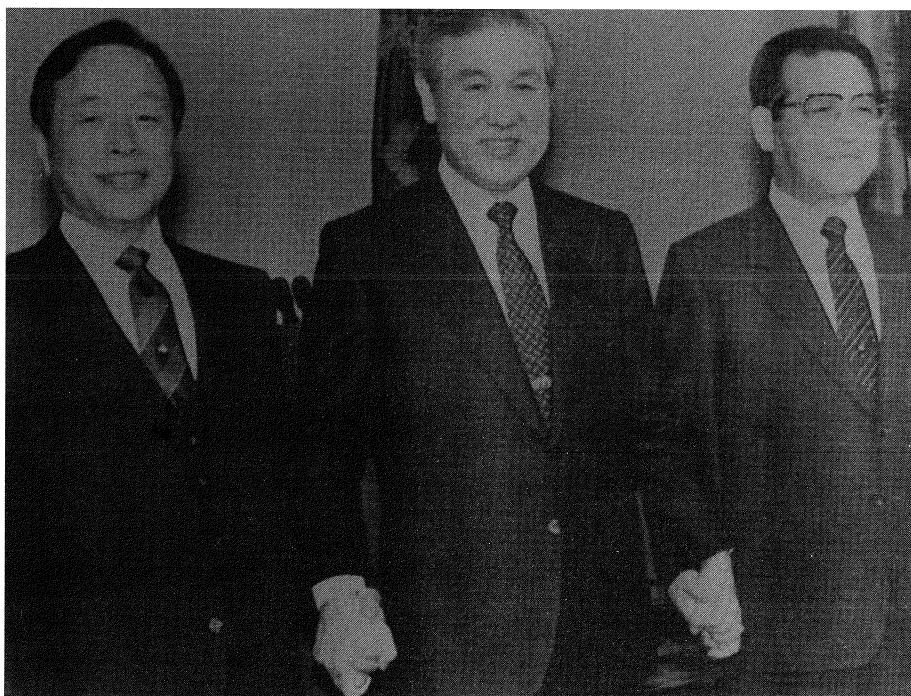
〈사진. 9-127〉

14대 국회의원 선거 합동유세장



〈사진 9-128〉

3당 합당 선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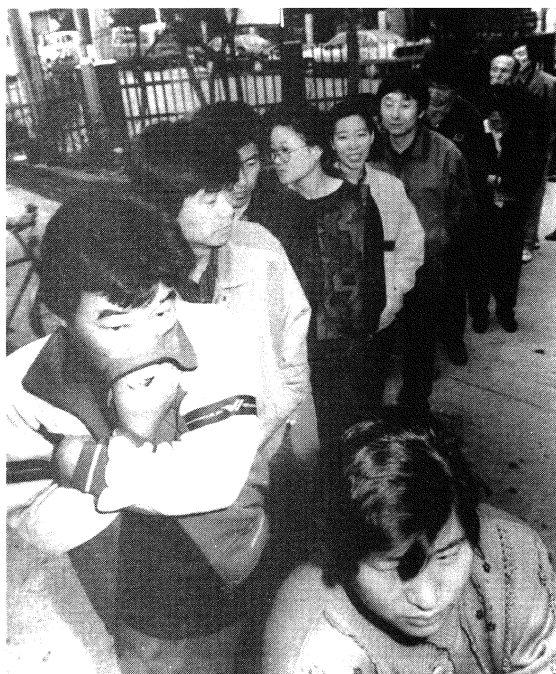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28〉

3당 합당



〈사진 9-130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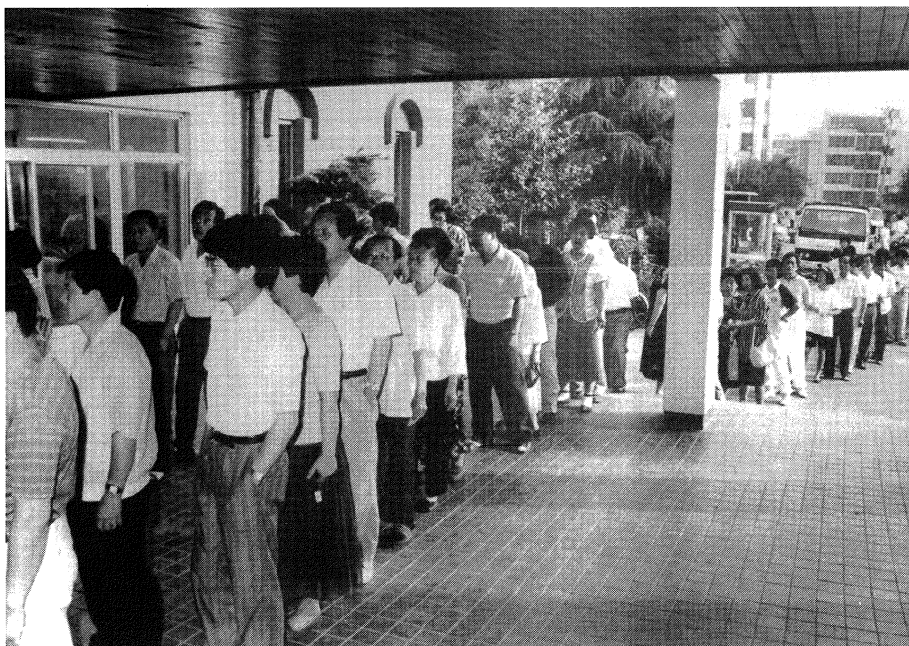
3당 합당반대 평민당국회의원들의 대 시민홍보운동



〈사진 9-131〉 기초의회 선거 투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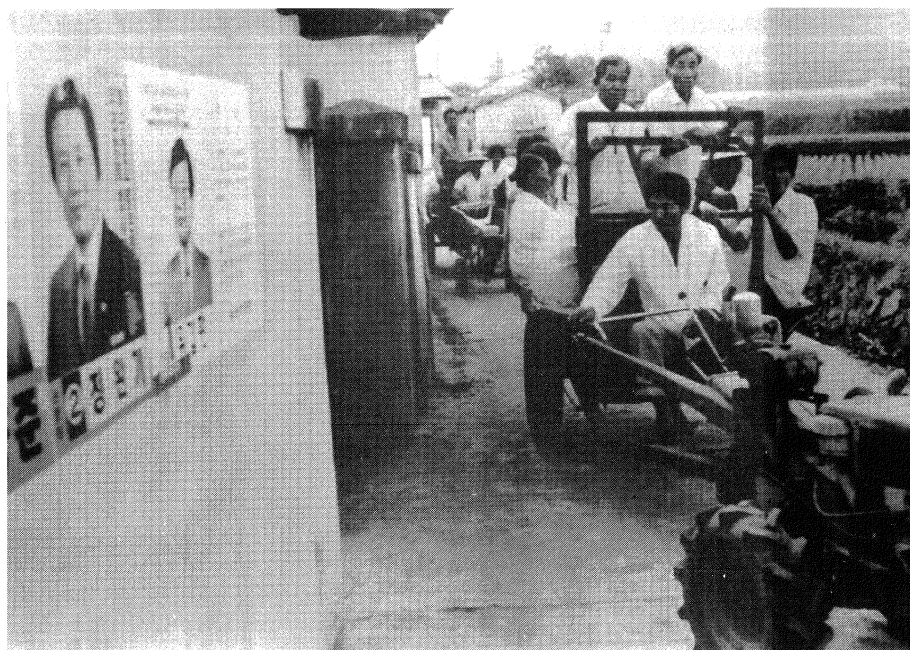


〈사진 9-132〉 기초의회 선거 유세장 입구



〈사진 9-133〉

광역의회 선거 투표 유권자들의 행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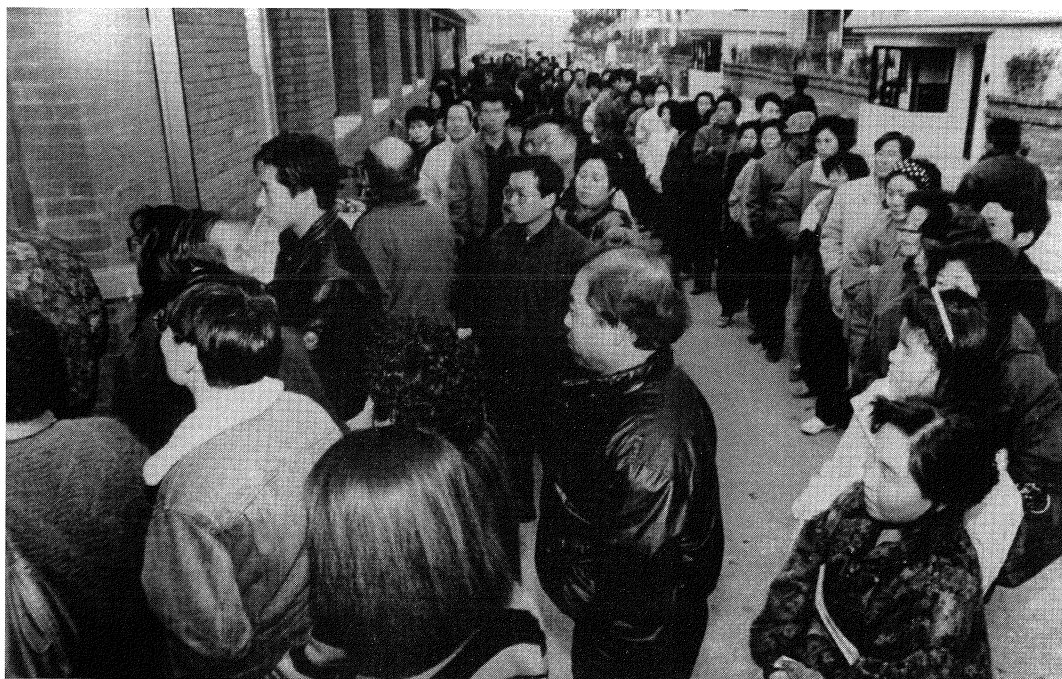
〈사진 9-134〉

광역의회 선거 투표소를 향하는 농민들의 경운기 행렬



〈사진 9-135〉

광역의회 선거 개표소



〈사진 9-136〉 줄이은 한표 행사(제14대 대통령 선거, 대구 달서구 월배 5동 제4투표소)



〈사진 9-137〉

14대 대선 개표소



〈사진 9-138〉

14대 대선 유세장(김영삼 입후보자)